

2. 朝鮮通信使の旅程・조선통신사의 여정

朝鮮通信使の船旅は釜山から対馬、壱岐、福岡藍島、山口赤間関、山口上関、広島浦刈、広島福山鞆の浦、岡山牛窓、兵庫室津、兵庫津、摂津大坂、山城、淀までです。そこから陸路でした。

各港では潮待ちなどで各藩の迎賓館に3~5日は宿泊しています。大坂湾の港からは一艘に70人の人足が、淀川の両岸から綱引きで現在の淀まで引っばります。陸路は、淀で下船してから京都、彦根、名古屋・浜松・静岡・箱根等を経て江戸に着きました。

大名行列にも許していない、関ヶ原合戦で勝利した後に家康が通った近江の道の通行を彼らには特別に認めてました。

朝鮮国王から日本国王への親書とお土産を持ってきた客人ですから大事に扱ったと考えられます。太鼓やラッパを鳴らし、にぎやかで物珍しく、一行は各地で大切にもてなされました。

乗船する大型船6隻はすべて朝鮮側の新しく作った船です。各宿泊地でお世話になる人への贈り物や将軍家への珍しい動物やお土産用にそのうちの3隻を使っています

조선통신사의 해상 이동은 부산에서 대마도, 잇키, 후쿠오카 아이노시마, 야마구치 아카마세키, 야마구치 가미노세키, 히로시마 우라가, 히로시마 후쿠야마 도모노우라, 오카야마 우시마도, 효고무로쓰, 효고노쓰, 셋쓰 오사카, 야마시로, 요도까지이며, 이후부터 육로로 이동했다.

각 항구에서는 물 때를 맞추기 위해 각 번의 영빈관에 3일에서 5일 정도 숙박했다. 오사카만의 항구에서는 배 한 척을 70명의 선원이, 요도강의 강가 양쪽에서 줄로 당겨 현재의 요도까지 끌어 왔다. 요도에서 하선한 후 육로로 교토, 히코네, 나고야, 하마마츠, 시즈오카, 하코네 등을 거쳐 에도에 도착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이에야스가 지난간 오미 가도는 다이묘의 행렬에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통신사에게는 특별히 통행이 허용되었다.

조선 국왕이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와 선물이니 소중히 다루었을 것이다. 복을 치고 나팔을 부는 시끌벅적하고 신기한 모습으로, 일행은 각지에서 친절환대를 받았다.

승선하는 대형선 6척은 모두 조선 측이 새로 건조한 배였다. 그 중 3척은 각 숙박지에서 신세지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나 장군에게 보내는 진귀한 동물과 선물을 심기 위해 사용했다.

A. 朝鮮通信使訪問年度別概観・조선통신사방문 연도별 개관

년 年	당시 조선왕 및 막부장군 當時朝鮮の王及び幕府將軍		정사 正使	부사 副事	종서관 從事官	제술관 製述官	인원 人員	주요 목적 主な目的・特別な出来事
1차 1607년 (慶長 12年)	선조40년 宣祖40年	도쿠가와 이에야스 徳川家康	여우길 呂祐吉	경섭 慶暹	정호관 丁好寬	양만세 楊萬世	500	국교 회복, 포로 송환 日朝国交回復、捕虜送還 (回答兼刷還使)
2차 1617년 (元和 3年)	광해군9년 光海君9年	도쿠가와 히데타다 徳川秀忠	오윤겸 吳允謙	박재 朴梓	이경직 李景稷	- -	428	오사카 국내 평정축하, 포로반환 大坂戦後国内平定祝賀 捕虜返還(回答兼刷還使)
3차 1624년 (寬永 元年)	인조2년 仁祖2年	도쿠가와 이에미쓰 徳川家光	정립 鄭立	강홍중 姜弘重	이계영 辛啓榮	- -	460	도쿠가와 이에미쓰 취임 축하, 포로 송환 家光襲封祝賀、捕虜送還 (回答兼刷還使)
4차 1636년 (寬永 13年)	인조14년 仁祖14年	도쿠가와 이에미쓰 徳川家光	임광 任統	김세렴 金世濂	황호 黃晫	권칙 權弼	478	조선통신사, 칭호를 대군으로 변경, 닛코 유람 朝鮮通信使, 称号を大君号に 改変, 日光遊覧
5차 1643년 (寬永 20年)	인조21년 仁祖21年	도쿠가와 이에미쓰 徳川家光	윤순지 尹順之	조경 趙綱	신유 申濡	박안기 朴安期	477	도쿠가와 이에쓰나 출생 축하 家綱誕生祝賀、日光致祭 (朝鮮通信使)
6차 1655년 (明曆 元年)	효종6-7년 孝宗6年	도쿠가와 이에쓰나 徳川家綱	조형 趙珩	유창 兪場	남용익 南龍翼	이명빈 李明彬	485	도쿠가와 이에쓰나 취임 축하 家綱襲封祝賀、日光致祭 (朝鮮通信使)
7차 1682년 (天和 2年)	숙종8년 肅宗8年	도쿠가와 쓰나요시 徳川綱吉	윤지완 尹趾完	이언강 李彦綱	박경후 朴慶後	성완 成琬	473	도쿠가와 쓰나요시 취임 축하 綱吉襲封祝賀(朝鮮通信使)
8차 1711년 (正德 元年)	숙종37-38년 肅宗37年	도쿠가와 이에노부 筑川家宣	조태억 趙泰億	임수간 任守幹	이방언 李邦彦	이현 李顯	500	도쿠가와 이에노부 취임 축하 일본 국왕 칭호로 변경 家宣襲封祝賀(朝鮮通信使) 日本国王号に改変
9차 1719년 (享保 4年)	숙종45-46년 肅宗45年	도쿠가와 요시무네 徳川吉宗	홍치중 洪致中	황선 黃璿	이명언 李明彦	신유한 申維翰	475	도쿠가와 요시무네 취임 축하 대군 칭호로 변경 吉宗襲封祝賀(朝鮮通信使) 大君号に改変
10차 1748년 (寬延 1年)	영조24년 英祖24年	도쿠가와 이에시게 徳川家重	홍계희 洪啓禧	남태기 南泰耆	조명채 曹命采	박경행 朴敬行	477	도쿠가와 이에시게 취임 축하 家重襲封祝賀(朝鮮通信使)
11차 1764년 (宝曆 14年)	영조39-40년 英祖40年	도쿠가와 이에하루 徳川家治	조엄 趙暉	이인배 李仁培	김상익 金相翊	남옥 南玉	472	도쿠가와 이에하루 취임 축하 家治襲封祝賀(朝鮮通信使)
12차 1811년 (文化 8年)	순조11년 純祖11年	도쿠가와 이에나리 徳川家齊	김이교 金履喬	이면구 李勉求	없음 なし	이현상 李顯相	325	도쿠가와 이에나리 취임 축하 家齊襲封祝賀 (對馬で国書交換)

B. 朝鮮通信使訪問旅程・조선통신사 방문 여정

국가 国家	도/현 都道府県	지역 地域	비고 備考
조선 朝鮮	서울 ソウル	서울(ソウル)	창덕궁-발대식 昌徳宮-發隊式發隊式
	경상도 慶尙道	부산 釜山	영가대에서 출항. 오사카까지 바닷길이동 永嘉臺から出港、大阪まで海の道で移動
일본 日本	나가사키현 長崎県	쓰시마번(쓰시마국), 후추 対馬藩(対馬国)、府中	[안내] 쓰시마번주(소) [案内] 対馬藩宗氏 [숙소] 세이잔지, 고쿠분지 [宿所] 西山寺, 国分寺
	나가사키현 長崎県	히라도번(이키국), 가쓰모토우라 平戸藩(壱岐国)、勝本浦	[안내] 히라도 번주(마쓰우라) [案内] 平戸藩 松浦氏 [숙소] 가쓰모토우라 아미타당 [宿所] 勝本浦阿弥陀堂
	후쿠오카현 福岡県	후쿠오카번(지쿠젠국), 아이노시마 福岡藩(筑前国)、藍島	[안내] 후쿠오카 번주(구로다) [案内] 福岡藩黒田氏 [숙소] 아이노시마 객관 [宿所] 藍島客館
	야마구치현 山口県	조슈번, 아카마가세키 長州藩、赤間関	[안내] 가미노세키까지 조슈 번주(모리) [案内] 上関までは長州藩毛利氏 [숙소] 아미타지, 인조지 [宿所] 阿弥陀寺, 引接寺
	야마구치현 山口県	조슈 번(스오국), 가미노세키 長州藩、上関	(선박으로 세토내해를 따라 오사카까지 이동) (船で瀬戸内海を沿って大坂まで移動) [숙소] 가미노세키 오차야관(조슈번 영빈관) [宿所] 上関御茶屋館(藩迎賓館)
	히로시마현 広島県	히로시마번(아키국), 가마가리 広島藩(安芸国) 蒲刈	[안내] 히로시마 번주(아사노) [案内] 広島藩浅野氏 [숙소] 오차야관(히로시마번 영빈관) [宿所] 御茶屋(藩迎賓館)
	히로시마현 広島県	후쿠야마번(빈고국), 토모 福山藩(備後国)、鞆	[안내] 빈고국 후쿠야마 번주(아베) [案内] 備後福山藩阿部氏 [숙소] 후쿠젠지 내 [宿所] 対潮楼(福禅寺境内)
	오카야마현 岡山県	오카야마번(비젠국), 우시마도 岡山藩(肥前国)、牛窓	[안내] 오카야마번주(이케다) [案内] 岡山藩池田氏 [숙소] 혼렌지, 오차야관(오카야마번 영빈관) [宿所] 本蓮寺、御茶屋(藩迎賓館)
	효고현 兵庫県	히메지번(하리마국), 무로쓰 姫路藩(播磨国)、室津	[안내] 히메지번주(사카키하라) [案内] 姫路藩 [숙소] 오차야관(히메지번 영빈관) [宿所] 御茶屋(藩迎賓館)
	효고현 兵庫県	아마가사키번(셋쓰국), 효고 尼崎藩(摂津国)、兵庫津	[안내] 아마가사키 번주, 오사카 마치부교 [案内] 大坂町奉行 松平氏 [숙소] 하마혼진, 아미타지 [宿所] 浜本陣および阿弥陀寺

국가 国家	도/현 都道府県	지역 地域	비고 備考
일본 日本	오사카부 大阪府	기시와다번(셋쓰국), 오사카 大坂(摂津国)	[안내] 초기 오사카마치부교, 기시와다번 오카베씨. 여기부터 육로 이동(오사카 요도가와에서 교토까지 선박 이동) [案内] 大坂町奉行, 和泉岸和田藩岡部氏. ここから陸路移動(大坂淀川から京都まで船移動) [숙소] 니시혼간지 쓰무라 별원(기타미도) [宿所] 西本願寺津村別院(北御堂)
	교토부 京都府	요도번(야마시로국), 요도 淀藩(山城国)、淀	[안내] 요도번주(마쓰다이라) [案内] 淀藩主、松平氏 [숙소] 접대관(교토부터 에도까지 행로는 동해도 본선과 거의 일치) [宿所] 御馳走屋敷(京都から江戸までのルートは東海道本線とほぼ一致)
	교토부 京都府	야마시로국, 교토 山城国、京都	[안내] 교토 소시다이와 제제번 [案内] 京都所司代 膳所藩、京都町奉行 [숙소] 혼코쿠지 1차-3차는 다이토쿠지 9차 혼노지 [宿所] 本国寺 1次から3次まで大徳寺 9次は本能寺
	시가현 滋賀県	제제번(오미국), 모리야마 膳所藩(近江国守山)、森山	[안내] 이시카와씨(제제 번, 이세 가메야마 번) -가업으로 통신사 안내 [案内] 石川氏(膳所藩、伊勢亀山藩)、板倉氏 -家業として通信士案内 [숙소] 도문인(東門院) [宿所] 東門院
	시가현 滋賀県	히코네번(오미국), 히코네 彦根藩(近江国守山)、彦根	[안내] 히코네번주(이이) [案内] 彦根藩主井伊氏 [숙소] 히코네성조카마치 소안지(조선인가도) [宿所] (彦根城城下町)宗安寺(朝鮮人街道)
	기후현 岐阜県	오가키번(미노국), 오가키 大垣藩(美濃国)、大垣	[안내] 오가키번(토다) [案内] 大垣藩、戸田氏 [숙소] 불명 [宿所] 不明
	아이치현 愛知県	오와리 번(오와리 국), 나고야 尾張藩(尾張国)、名古屋	[안내] 오와리번주(도쿠가와) [案内] 尾張徳川氏 [숙소] 다이유산쇼코인 [宿所] 大雄山性高院
	아이치현 愛知県	오카자키번(미카와국), 오카자키 岡崎藩(三河国)、岡崎	[안내] 오카자키 번주 [案内] 岡崎藩主、水野氏 [숙소] 접대담당 영주(오자키번 영빈관) [宿所] 御馳走役大名(岡崎藩迎賓館)
	아이치현 愛知県	요시다번(미카와국), 요시다 吉田藩(三河国)、吉田	[안내] 미카와 요시다 번주 [案内] 三河吉田藩主、松平氏 [숙소] 불명 [宿所] 不明
	시즈오카현 静岡県	하마마쓰번(도토미국), 하마마쓰 浜松藩(遠江国)、浜松	[안내] 하마마쓰 번주 [案内] 浜松藩主、松平氏 [숙소] 불명 [宿所] 不明

국가 国家	도/현 都道府県	지역 地域	비고 備考
일본 日本	시즈오카현 静岡県	가케가와번(도토미국), 가케가와 掛川藩(遠江国)、掛川	[안내] 가케가와 번주 등 [案内] 掛川藩主等、小笠原氏 [숙소] 민가? [宿所] 民家?
	시즈오카현 静岡県	다나카번(스루가국, 후지에다 土岐藩(駿河国)、藤枝	[안내] 다나카 번주 등 [案内] 土岐氏 [숙소] 다이케이지 [宿所] 大慶寺
	시즈오카현 静岡県	스루가국, 오키쓰 江尻藩(駿河国)、興津	[안내] 다치바나씨, 교코쿠씨 [案内] 立花氏、京極氏 [숙소] 보태사(후타이지), 차야 [宿所] 宝泰寺、茶屋
	시즈오카현 静岡県	이즈국, 미시마 伊豆国、三島	[안내] 마츠다이라씨, 아리마씨, 교코쿠씨 [案内] 松平氏、有馬氏、京極氏 [숙소] 차야 [宿所] 茶屋
	가나가와현 神奈川県	오다와라번(사가미국), 하코네 小田原藩(相模国)、箱根	[안내] 차야, 오쿠보씨 [案内] 茶屋、大久保氏 [숙소] 휴게소(차야) [宿所] 休憩所(茶屋)
	가나가와현 神奈川県	오다와라번(사가미국), 오다와라 小田原藩(相模国)、小田原	[안내] 오쿠보씨 [案内] 大久保氏 [숙소] 가타오카혼진, 차야 [宿所] 片岡本陣・茶屋
	가나가와현 神奈川県	사가미국, 후지사 相模国、藤沢	[안내] 호리씨 [案内] 堀氏 [숙소] 마키지혼진, 차야, 쿠로다씨, 호리씨 [宿所] 時次本陣、茶屋、黒田氏、堀氏
	가나가와현 神奈川県	무사시국, 가나가와 武蔵国、神奈川	[안내] 구로다씨 [案内] 黒田氏 [숙소] 이시이혼진 [宿所] 石井本陣
	도쿄도 東京都	무사시국, 시나가와 武蔵国、品川	[안내] 접대담당 영주 [案内] 御馳走役大名 [숙소] 도카이지(종점, 닛코까지 3회 이동) [宿所] 東海寺(ほとんど終点、日光まで3回移動)
	도쿄도 東京都	무사시국, 에도 武蔵国、江戸	쇼군 알현·將軍謁見 [숙소] 아사쿠사혼간지 [宿所] 浅草本願寺

接待役(案内)의 姓名は通信使使行の年次によって異なることが多い。本表は1719(享保4)年の例を下記の著書によって一覽表にした。細部にわたっては不明。役割のちがいがあがる。

(仲尾宏著『朝鮮通信使と壬辰倭乱』2000年明石書店)

접대역(안내)의 성명은 통신사 시기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본 표는 1719년의 예를 『조선통신사와 임진왜란』(나카오 히로시 저, 아카이시쇼텐, 2000)를 참고해 정리한 일람표이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한 점이나 역할의 차이가 있다.

C. 画員李聖麟が見た日本-「嵯路勝区図」の釜山から江戸まで 화원 이성린이 본 일본 - 「사로승구도」 부산에서 에도까지

朝鮮通信使一行には朝鮮を代表する画員が参加し、日本で訪れた地をスケッチしました。李聖麟が描いた「嵯路勝区図」は、釜山から江戸までの日本各地の寄港地、陸路各地の風景、大坂などの都市景観をパノラマ風に描いています。釜山から始まり、対馬を経て、江戸に及ぶ旅程の中で要な場面を二帖30図に分けて描きました。「嵯路」とは海道(現代日本語では通行した道)を意味し、「勝区」とは美しい景色という意味です。近世日本を外国人が見て描いた貴重な記録画です。「嵯路勝区图画集」は韓国国立中央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ます。次のページにある絵画の解説は曹命采の『奉仕日本時見聞録』(1784年)を辛基秀氏が日本語に翻訳したものです。

조선통신사 일행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화원이 참가해 일본을 스케치했다. 화원 이성린이 그린 「사로승구도」는 부산에서 에도까지의 일본 각지의 기항지, 육로 각지의 풍경, 오사카 등의 도시 경관을 파노라마식으로 그렸다. 부산부터 에도까지의 여정 중에서도 중요한 장면을 30장 그림을 두개의 첩에 나누어 그려 넣었다. “사로(嵯路)”란 바닷길을 뜻하고, “승구(勝区)”란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으로, 근세 일본을 외국인이 보고 그린 귀중한 기록화이다. 「사로승구도화집」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그림 해설은 조명채(호는 난곡)의 『봉사일본시견문록』(178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신기수 씨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李聖麟, 「嵯路勝区図」の中の釜山 이성린, 「사로승구도」중 <부산>
1748년, 종이에 엮은 색, 각 35.2x 70.3cm

1. 釜山鎮城と永嘉台・부산진성과영가대

日本へ出発にあたりて、釜山永嘉台で航行の無事を祈る。海神祭が行われる永嘉台は釜山港の東北の子城台の麓にある。その下に倭船が見える。祭事は飲酒は断ち喫煙を禁じ葷菜(ねぎとニンニク)を食べず音楽も聴かず、必ず心身を淨めて行われた。絵の中央は釜山鎮城だ。

일본 출발에 앞서, 부산 영가대에서 무사한 항해를 기원한다. 해신제(龍神祭)를 지내는 영가대는 부산항의 동북쪽 자성대 산기슭에 있다. 그 아래 일본배가 보인다. 제사에는 금주금연을 하고, 파, 마늘도 먹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으며 심신을 깨끗이 했다. 그림 중앙은 부산진 성이다.



2. 対馬島芳浦瀬戸・쓰시마요시우라해협

二月十六日、釜山出航。二月の海は猛り立つ波と吹き荒れる強風で船内では、皆転倒。額に生色なく、鰐浦入港。23日まで風待ちのため逗留。23日曳き船により芳浦の港外に出る。

2월 16일 부산출발. 2월 바다의 심한 파도와 강풍으로 배 안에 전원 쓰러지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다. 와니우라에 입항. 강풍으로 23일까지 머물다. 23일 예양선에 의해 호가마항 밖으로 나간다.



3. 対馬島西山寺・쓰시마의 세이잔지

二月二十四日対馬・府中(厳原)着。館所の小高い西山寺から壱岐島の海路がみえ、館所の門外は、倭館が終日正座して動かず、夜も燈火を揚げて寝ずの番をする。

2월 24일 대마도, 후추 도착. 숙소의 언덕 위 서산사에서 이키섬의 바닷길이 보이고, 숙소의 문 밖에는 왜관이 종일 정좌해 미동도 않고 등불을 들고 불침번을 선다.



4. 壱岐島風本浦・잇키시마카자모토우라

府中を3月17日出港。隨行の対馬の人が1500人。波は対馬にくるときよりさらに険しく、全員昏倒。申の刻(後午4時)に壱岐島の港口に到着。館舎は荒田に構築したもの。港の人家は左右の石積の上に在り、見物の女子は刺繍した上衣(羽織)と絵を染めた下衣(着物)を着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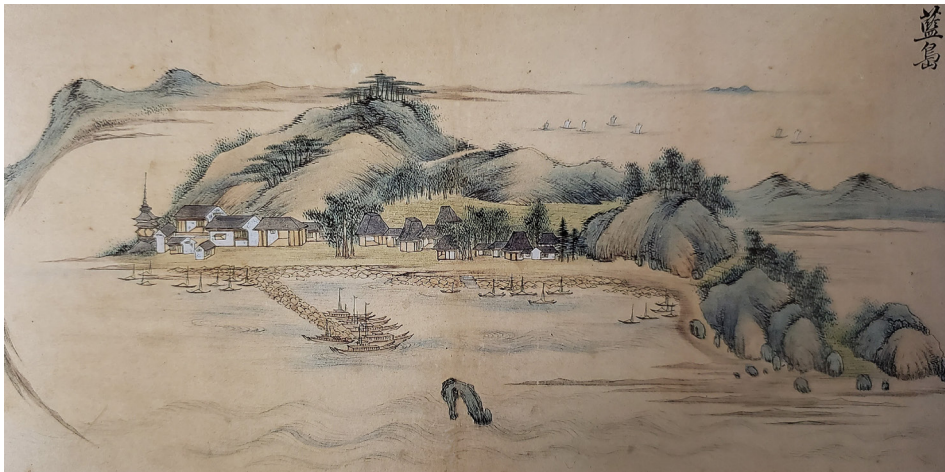
후추에서 3월 17일 출항. 수행하는 대마도의 사람은 1,500명. 파도는 대마도에 올 때보다 더 험해 모두가 혼절해 쓰러졌다. 오후 4시에 이키섬의 항구에 도착. 관사는 황폐한 밭에 지은 것. 항구의 인가는 좌우의 돌담 위에 있고 구경하는 여인들은 수놓은 상의와 그림 있는 하의를 입고 있다.



5. 藍島・아이노시마

風雨に阻まれて壱岐の滞在が十三日間。四月二日の夜、藍島の曳き船が海を覆うようにしてやってきた。海の航行は昼間の有視界航行が原則だが潮流や風向きによっては夜間航行も余儀なくされ、各所の番所の安全誘導が重大な任務であった。民家の少ない藍島に、新築された館舎の大きさは千間(1,600メートル)に近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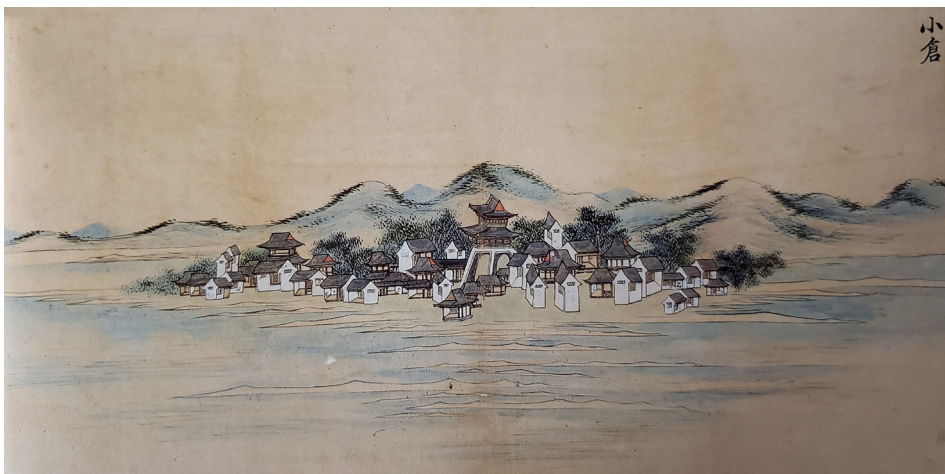
비바람에 막혀 이키에 13일간 체류. 아이노시마의 예인선이 바다를 덮을 듯이 다가 왔다. 바다의 항행은 낮 동안의 시계가 확보된 항행이 원칙이지만 조류나 풍향에 따라서는 야간 항행도 불가피해져 곳곳에 설치된 번소 각처의 안전 유도가 중대한 임무였다. 민가가 적은 아이노시마에 신축된 관사의 크기는 1,600미터에 가깝다.



6. 小倉・고쿠라

四月五日、赤間関に向かう。15万石の小倉藩の警備は三百数十隻の警備船と、藍島からの福岡藩護行船団から引き継ぐ。船に棹さす見物船の男女は無数。小倉の船の水夫たちは船に乗った船頭の手旗に応じて力を合わせて遭いだ。

4월 5일 아카마가세키로 향한다. 15만석의 고쿠라 번이 삼백 수십척의 경비선으로, 아이노시마에서 후쿠오카번 호행선단에 인계한다. 구경하기 위해 배에 탄 남녀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고쿠라 배의 뱃사공들은 선두 사공이 손에 든 깃발을 따라 힘을 모아 노를 젓는다.



7. 赤間関・아카마가세키

五日の末の刻(午後1時)に赤間関着。引き潮で水の流れが速い。初めて本州の領土に上陸。安徳天皇の墓所に全員が立ち寄った。寺の周辺に多くの居酒屋が立ち並び、飾った見物人が列をなしている。長州藩の学者が華やかな詩文の唱いあげた。一般の人も朝鮮の文学と詩文があったかも侯の乾た人が水を求めるように待ち受けていた。

5일 오후 1시 아카마세키 도착. 썰물로 물살이 빠르다. 처음으로 일본 영토 본섬에 상륙. 안토쿠 일왕의 묘소를 전원이 들렀다. 절 주변에 술집이 늘어서 있고 치장한 구경꾼들이 줄을 이루었다. 조슈번 학자가 화려한 시문을 읊었다. 일반인들도 조선의 문학과 시문을 마치 목 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기다리고 있다.



8. 上関・카미노세키

四月八日申の刻(午後四時)上関に入る。毛利氏の別邸「お茶屋敷」が朝鮮通信使の宿舎。周防灘の難所を避け、狭い海峡の流れる潮流れが沖をゆく数倍の速さで船脚を早めた。上関は朝鮮通信使や西国大名の参勤交代の船が寄港して賑わっていた。上関の毛利藩接待は鮮魚、蔬菜等味は甚だ爽快であり、日毎に提供される鳥は生きたまま竹籠に入れて差し出され、船上の鳥のなき声は陸地の家に共に居るようで心を慰められた。

4월 8일 오후 4시 카미노세키에 도착. 모리씨의 별택인 "오차야시키"가 조선통신사 숙소. [스오우나다라 불리는 험한 해역을 피하고, 좁은 해협이 흐르는 조류가 몇 배의 속도로 도착을 앞당겼다. 카미노세키는 조선통신사와 지방 영주의 참근교대(산킨코타이)배가 기항해 봄냈다. 카미가세키 모리번이 접대하는 생선, 채소 등은 매우 기분을 좋게 했으며, 매일 제공되는 새는 산채로 죽룡에 넣어져 제공되었다. 배 위에서 우는 새소리는 육지의 집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9. 津和・츠와

十日、西風で順調に出航。海上は瀬戸内海産物や木綿を運ぶ大坂船が往来し、碁石を散らして置いたように島々があちこちに点在している。無数の島と岬で複雑な航路を船団は駆け抜け、日暮れ時に津和に接岸、三使は松平安藝守の茶屋に入り、他は波止場が狭いので船内に留まった。

10일, 서풍으로 순조롭게 출항. 바다 위에는 세토나िका이의 산물이나 목화를 나르는 오사카의 상선들이 왕래하고, 바둑돌을 흩어놓은 것처럼 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선단은 무수한 섬과 곶으로 복잡한 항로를 앞질러 갔고 해질녘에 츠와에 접안, 삼사는 마츠다이라 아키노카미의 다실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부두가 좁기 때문에 선내에 머물렀다.



10. 蒲刈・카마가리

十一日申の刻(午後四時)に着岸。石提を積んで新築した館所まで赤い毛氈が敷かれている。民家は百余戸だが景色は絶景。間仕切りの門には青、赤、黄の色を交えて織った幔幕が垂れ光彩が燦然として、蚊帳の彩色した糸と金の釣りも華麗である。

11일 오후 4시에 해안에 도착하자 돌 제방을 쌓아 신축한 숙소까지 빨간 양탄자가 깔려 있다. 민가는 백 여호 정도, 경치는 절경. 칸막이 문에는 파랑, 빨강, 노란색을 섞어 짠 가림막이 쳐져 광채가 찬연하고, 모기장의 채색한 실과 금장식 모양도 화려하다.



11. 盤台寺・반다이지

蒲刈を出発、美酒と良い紙を産出する平原を左に見ながら順風を得てすすむと、海潮山盤台寺が水面に削り立った青い岸壁の上にみえる。一人の僧は往来する旅人がくれるものを貰って順風を祈ってお返しをしている。通信使は三船からそれぞれ米一俵、果物を送った。

카마가리에서 출발, 맛 좋은 술과 질 좋은 종이를 산출하는 들판 왼편을 보면서 순조롭게 나가니 해조산 반대사(반다이지)가 수면에 깎인 푸른 암벽 위에 보인다. 스님 한분은 왕래하는 나그네가 주는 것을 받고 답례로 여행의 무사 안녕을 빌고 있다. 통신사가 탄 세척의 배도 각각 쌀 한 가마, 과일을 주었다.



12. 下津(下津井)・시모즈(시모즈이)

下津井寄港は二度。延享度は通り過ぎた。肥前藩の重要な港は北岸にあり、陸地とつながらず孤島をなしているが、人家は1,000戸を超え、見物する男女が山と海をすっかり覆っていた。海でも飛舟(飛脚船)が数か月前から岡山、牛窓へ飛び回り、藩船(十四人乗り)をはじめ300隻の船と一万を超える水夫が動員された。

시모즈이 기항은 두 번. 1748년은 지나쳤다. 히젠번의 주요한 항구는 북쪽 해안에 있으며 육지와 이어지지 않고 홀로 섬을 이루는데 인가는 1,000채를 넘어 구경하는 남녀가 산과 바다를 완전히 뒤덮고 있다. 바다에도 비선(히카쿠선)이 몇 달 전부터 오카야마, 우시마도로 날아 다닌다. 번의 배(14인승)를 비롯한 3백척의 배와 1만 이상의 뱃사람이 동원됐다.



13. 靉浦・토모노우라

十五日未の刻(午後三時)靉浦着。波止場の構造は赤間関と同一。岸の端の高い断崖に閘があり、庭に槍、刀を並べている。夕暮れに国書を奉じて上陸。道の両側の家家に提灯燈がつるされ、道には砂利を敷き詰め土を見せていない。福禅寺は、通信使の宿舎として名高い。

15일 오후 3시 토모노우라 도착. 부두의 구조는 아카마세키와 동일. 해안의 높은 절벽 위에 정자가 있고, 마당에 창, 칼을 늘어 놓고 있다. 해질녘에 국서를 모시고 상륙. 길 양편 집집마다 다락에 제등이 켜져있고, 길에는 자리를 깔아 흙이 보이지 않았다. 복선사(후쿠젠지)는 통신사의 숙소로서 유명하다.



14. 夜泊日比・배에서 보낸 히비향

十六日夜、日比港に碇を下るす。時刻は二更(午後十時)になっている。正使船が行方不明になっている。探し出されると風と潮流れかが逆となり、碇を下ろして潮の退くのを待っているとのことであった。海に照月は昼間のようで船の燭火と村の燈火が水に沈んで照り映え、望郷の想いをつのらせた。

16일 밤. 히비향에 닻을 내렸다. 시간은 오후 10시경이 되었다. 정사가 탄 배가 실종되었다. 찾으려하니 바람과 조류가 역방향이 되어 닻을 내리고 조수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바다에 비치는 달빛은 낮과 같아서 배의 촛불과 마을의 등화가 물에 잠겨 빛나고 망향의 그리움을 더했다.



15. 牛窓・우시마도

十七日牛窓着。通信使の館舎は藩主の茶屋で、刺繍した帳に赤い毛氈がが華やかであった。池田藩の儒学者との交流の中で、近藤篤(号西厓一二十四歳)が言葉の条理も優れていった。「私如き一介の町人がいかにすれば身を修めるのが教え下され」と、迄うた。

17일 우시마도에 도착. 통신사의 관사는 영주의 찻집으로 수놓은 장막에 빨간 양탄자가 화사했다. 이케다번의 유학자와의 교류 중에, 언변이 뛰어난 콘도 아즈시(호 서에-24세)가 "나 같은 일개 선비가 어떻게 해야 수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



16. 室津・무로쓰

十九日の末の刻(午後2時)室津に船を着ける。波止場のはしにある姫路藩の別邸お茶屋へ国書を奉じてはいる。館所の門には真っ赤な模様の絹の幔幕を垂らし、岩壁には松・竹が繁茂して清麗。藩主からもてなしの鮮魚と酒は全員に分け与えられた。

19일 오후 2시 무로쓰에 배가 도착하다. 부두 끝에 있는 히메지번의 별장인 찻집에 국서를 받들고 들어갔다. 숙소 문에는 새빨간 무늬의 비단 장막을 늘어트리고, 암벽에는 소나무·대나무가 무성하여 맑고 곱다. 번주의 접대품인 선어와 술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17. 夜入大坂・밤에 오사카 입성

淀川を金で裝飾した船を連ね廻行する。左右の見物人は幾ト万か不明、小船に乗った見物人が堤の下に並び、空中に明るく輝く火珠と虹が近づく。虹は橋で火珠は橋の上に吊るされた提燈であった。夜が更けて船から上陸。駕籠と人夫と馬が並んで待っていた。

요도강을 금으로 장식한 배로 줄지어 거슬러 올라간다. 좌우 구경꾼은 수가 불분명, 조각배를 탄 구경꾼들이 제방 아래에 줄지어 있다. 하늘에는 밝게 빛나는 화주(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둥근 옥돌)와 무지개가 가까이 다가온다. 무지개는 다리였고, 화주는 다리 위에 매달린 연등이었다. 밤이 깊어 배에서 상륙하니 가마와 인부와 말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18. 大阪城館・오사카성 숙소

大坂の館所西本願寺の庭の前後左右の長廊・回廊がよくきく。町の大通りには色鮮やかな着物を着た人が街角を埋め、白壁の高樓が埋め尽くしている。二層、三層と空中に高くそびえ、雪の頂のような建物で、所々に幟がひろがっているのを何かと聞いてみると居酒屋、紺屋である。

오사카의 숙소인 니시혼간지 정원 사방에 있는 장랑과 회랑이 훌륭하다. 마을 거리 큰길에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사람이 길 거리를 메우고 흰벽의 높은 누각을 가득 메웠다. 2층, 3층과 공중에 높이 솟아있고 눈 쌓인 정성과 같은 건물에, 곳곳에 깃발이 펼쳐져 있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선술집, 염색집이다.



19. 淀浦・요도우라

三、四層の望楼が所々にそびえる淀城は、城をとりまいて淀川の水を引き入れている。一六枚の羽根のついた水車二基が淀川の流水で糸繰り車のように廻ると、自動的に城内に汲み入れられ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

3, 4층의 망루가 곳곳에 솟아 있는 요도성은 성을 둘러싸고 요도강 물을 끌어 들이고 있다. 16장의 날개가 달린 수차 2기가 요도강의 물흐름에 따라 물레처럼 돌면, 자동으로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 西京本長寺(本圀寺)水園・사이쿄 혼초지(혼코쿠지) 수원

日が暮れて京都の宿館である本国寺に入る。通信使一行に日本人の行例が続く。連なる提燈の灯で人の毛髪を数えられるほど明るい。京都所司代 牧野貞通の慰勞の挨拶に回答、茶礼を行った。朝食後に庭をめぐる。宿館の道は華やかで長くつづき幾千間かわからない。庭に小川が流れ、香ばしい深緑の樹が垣のようにとり巻いている。

해질녘에 교토 숙소인 본국사에 도착했다. 통신사 일행과 줄곧 호위하는 일본인의 행렬이 줄지어 있다. 빛을 내는 제등의 불빛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밝다. 교토쇼시다이(막부 대리인) 마키노 사다미치(히고노카미: 직책)의 위로의 인사말에 회답 후 다례를 가졌다. 아침 식사 후에 정원을 돌아보다. 숙소 길은 화려하고 긴 복도 또한 수천 칸에 이른다. 뜰에 시냇물이 흐르고 향긋한 푸른 나무가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다.



21. 琵琶湖勢多橋・비와호 세다교

琵琶のような形の日本一の湖の眺望は爽朗壮大。中国の洞庭湖の広さに劣らない。絵の中の景色でなく正に錦繡の山と、曹命采は讚えた。低くたなびいた霞に一羽の家鴨と彩色した橋、そして青い山野の絶妙の組み合わせ。通信使一行は日本の八景に対して題詩を求めるにまず琵琶湖を数え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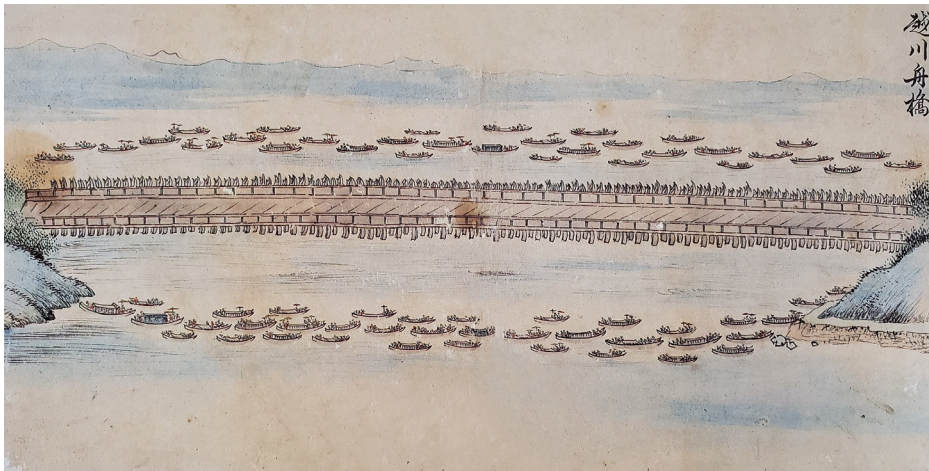
비파와 같은 모양을 한 일본 제일의 호수의 조망은 시원스럽고 장대하다. 중국의 동정호의 넓이에 지지 않는다. 조명채는 그림 속 경치가 아닌 실로 금수산이라고 칭송했다. 낮게 나부낀 안개 속에 한 마리의 집오리와 채색된 다리 그리고 푸른 산야는 절묘한 조합이다.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팔경을 시제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비와호를 생각했다.



22. 越(起)川舟橋・오기강 배다리

美濃路の越川(木曾川)、小熊川(境川)、黒俣川(長良川)、佐渡川(根斐川)には朝鮮通信使のために船をならべた舟橋が架けられ一般人の通行は許されなかった。佐渡川に架かる船は七十余隻、船の上の板に砂がまかれ、兩岸に太い木柱をたて滑車を設け鉄鎖と麻綱で引っばる構造。

미노길의 코시강(기소가와), 오구마강(사카이 가와), 쿠로마타강(나가라강), 사도강(이비강)에는 조선통신사를 위해 배를 늘어놓은 배다리가 놓였다. 일반인의 통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도 강을 건너는 배는 칠십 여척 배 위의 판에 모래를 뿌리고 양쪽 강기슭에 굵은 나무기둥을 세우고 도르래를 설치하여 쇠사슬과 삼베 망으로 잡아당기는 구조다.



23. 金絶河・킨세츠가와

三河の荒井(新居)宿の館所から数町はなれた金絶河(今切川)は、昔、朝鮮通信使が江戸で贈物として受け取った金銀小判を、儒学者達は金銭と金銭欲に無縁な士であるという理由により、この河に捨てたので金絶河となつた。河は江戸城防衛のために、渡河に際しての検査は厳重である。一行の渡河には楼船に従う船あわせて三百余隻。

미카와의 아라이쥬큐(荒井宿)의 관소에서 몇 개 마을 떨어진 킨세츠가와(이마기레가와)은 옛날 조선 통신사가 에도에서 선물로 받은 금화를, “유학자들은 돈과 금전욕에 무연한 선비다”라는 이유로 이 강에 버리고 갔기에 금질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강은 에도성 방위 때문에, 도강할 때 검사가 엄격하다. 일행의 도강에는 누각선에 따르는 배를 합쳐 모두 3백 여척이다.



24. 高塚澤十里菱荷・타카츠키카 연못 10리에 마름과 연꽃

数十の石段を登ると前に海を見おろし、視界は広がり雄大・無限の幽趣が漂う。庭の梅の木は低く左右の枝は二間に伸びている。小僧が三使に詩を呈し帰路和答してくれるよう頼みこむ。朴安期の「諸仏宅」の懸額をはじめ各年度の三使らの懸板がある。

아라이에서 점심을 먹고, 킨세츠가와(이마기레가와)를 금칠을 한 배로 건너서, 마즈다이라 분코노카미(직책명) 마중을 받으며, 무사히 도하한 것을 축하받았다. 언덕위의 시가지는 번창했다. 큰 연못에 마름과 연꽃이 가득 피었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독을 둘러싼 경승지가 있었다.



25. 涉大定(井)川・쇼다이강

山峡からの急な水流の大井川蓮(輦)台で渡る。担ぐ竿の太さは柱ほどで井の字形に横にして前後左右合わせて八つの柱で固く結び、台の上の輿を固定して担ぐ。新しい青い模様の白衣を着た人足は、蓮(輦)台一台につき五十余の人であり全体の数は幾百人ほどなのか数えきれない。人足たちの水の歌は形容し難いほど美しい。

산골짜기에서 빠른 물살이 흐르는 오오이 강을 가마를 타고 건넌다. 둘러멘 장대의 굽기는 기둥 정도이며 우물정자형으로 넓혀 전후좌우로 맞추어 여덟 개의 기둥을 단단히 묶고, 받침대 위에 가마를 고정하여 맨다. 푸른 옷깃의 흰 옷을 입은 인부는 위에 가마 한 대당 오십 여명이며, 전체 수는 몇 백명인지 셀 수 없다. 인부들이 건널 때 부르는 노래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



26. 清見寺・세이켄지

数十の石段を登ると前に海を見おろし、視界は広がり雄大・無限の幽趣が漂う。庭の梅の木は低く左右の枝は二間に伸びている。小僧が三使に詩を呈し帰路和答してくれるよう頼みこむ。朴安期の「諸仏宅」の懸額をはじめ各年度の三使らの懸板がある。

수십 개의 돌계단을 오르면 전면에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시계가 확 트여 웅대하고 무한하며 그윽한 정취가 감돈다. 정원의 매화 나무 가지는 낮게 좌우 3미터 정도 뻗어 있다. 동자승이 삼사에게 시를 보이고 귀로에 화답 해 달라 부탁한다. 박안기의 "제불택"의 현판을 비롯한 각 년도의 삼사들의 현판이 있다.



27. 吉原館齋十七日望見富士山雪・요시하라 관제에서 17일 후지산 눈을 보다

駿府の宝泰寺の朝食は初物の胡瓜である。通信使のために山頂につくられた薩埵峠を超える山道の峠からは富士山の全容がみられた。屹立した峠の真下は断崖絶壁の親知らず知らずで知られる難所である。富士山は中腹以下は雪で覆われていたので帰路に再び見ることにした。富士山の見物客は立錐の余地がない。

쓴푸 보태사(호우타이지)의 아침 식사는 첫 수확한 오이다. 통신사를 위해 산꼭대기에 만들어진 샨타 고개를 넘어가는 산길 고개에서 후지산의 전모를 볼 수 있었다. 우뚝 솟은 고개 바로 밑으로 깎아지른 절벽은 험난한 곳으로 알려진 힘든 곳이다. 후지산은 중턱 이하가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귀로 때 다시 보기로 했다. 후지산 구경객은 입추의 여지가 없다.



28. 箱根嶺上館臨大澤・하코네 고개 위 큰 호수를 보다

嶺上にある湖の北岸に人家多く、道端の寺院が湖に迫り、道の端の寺院には大きな金仏が安置され、庭に多くの石物が並び、松、杉が山に満ちている。江戸第一の関所で門があり柵には剣、槍、銃の防備の武具がある。「入鉄砲出女」を見張る役人の警備は厳重。

전길 고개 위 호수의 북쪽 기슭에 인가가 많고, 호수를 좇는 도로 끝의 사원에는 큰 금불이 안치되어 있고, 정원에 많은 석물들이 널려있고, 소나무, 삼나무가 산에 가득하다. 에도 제일의 관문이 있고, 선반에는 검, 창, 총 등 방어 무기가 있다. 「입철 포출녀(에도로 들어가는 무기와 에도에서 나오는 영주의 가족들)」를 감시하는 관리의 경비는 엄중하다.



29. 入江戸・에도에 들어가다

いよいよ江戸に入る。正使ら三使と上官は烏沙帽に紅袍を準備。弓矢袋を背にした軍官たちは国書輿の出発に先立って、衣服を正して出発。対馬藩の通訳官二名が駕籠の前を並んで歩く。国書輿を担ぐ人の衣服も全て新調された。江戸に近づくにつれ、街は華麗になる。屋根の上に白い土が塗られ、雪のように見える。いくつかの太鼓橋を過ぎると、橋の下の見物人は船を連ねて陸地を成している。正午、本願寺にはいる。

드디어 에도에 도착. 정사인 삼사와 상관은 사모에 홍포를 준비. 활통을 멘 군관들은 국서 가마의 갈도(曷道:귀인이 외출할 때, 앞쪽에 있는 동행인을 쫓아버리는 것)를 위해 의복을 갖추고 출발. 쓰시마번의 통역관 두 명이 가마 앞을 나란히 걷는다. 가마꾼 옷도 모두 새로 장만했다. 에도가 가까워지면서 거리는 화려하고, 지붕 위에 흙이 칠해져 눈처럼 보인다. 몇 개의 북다리를 지나면, 다리 밑의 구경꾼들은 배를 나란히 붙여댈 채 육지를 이루고 있다. 정오에 본원사(혼간지)에 들어가다.



30. 関白亭・칸빠쿠테이

国書を捧持して八月の旅の終着、江戸城における国書交換の儀式。関白(将軍)の坐す松の間に、国書を障壁に奉じて置き、正使ら三使は国書に向かって座る。対馬守は向きを換えて隅に座り、北側の壁に日本の大名数十人が車座にならぶ。国書交換の後、正使ら三使を導いた対馬守は、三使のまえに膳をすすめ、三使らとの饗宴が始まる。杉の木でつくられた白い膳と器を前に酒杯のやりとりが続く。

국서를 받들고 8개월 여정의 종착, 에도성에서 국서교환 의식. 관백(장군)이 앉은 마스노마에 국서를 수렴(받) 앞에 두고, 정사 등 삼사는 국서를 향해 앉는다. 쓰시마노카미(対馬守:직책)는 앉는 방향을 바꿔 구석에 앉고, 북쪽 벽에 일본의 영주 수십명이 둘러 앉는다. 국서를 교환 후, 정사 등 삼사를 안내한 쓰시마노카미는 관백 앞에 음식을 담은 상을 두고 삼사들과의 향연이 시작된다. 삼나무로 만들어진 하얀 상과 그릇을 앞에 두고 술잔을 주고 받는 일이 계속된다.

